

보도자료

제 19 회 세계이탈리아 언어 주간 무대에서의 이탈리아어

제 19 회 세계 이탈리아 언어 주간을 맞이하여 주한이탈리아문화원은, 이탈리아 외무부가 선정한 테마를 바탕으로 이탈리아어가 연극 및 음악극과 맺어온 오랜 관계를 재조명하고자 서울대학교 오페라연구소, 한국외국어대학, 현대문학 출판사, 나폴리 Teatri Uniti, 라이치네마와 협력하여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언어주간의 본행사는 10 월 24 일 19 시 30 분에 일신홀에서 열립니다. 이탈리아의 잘 알려진 배우이자 연출가, 작가인 엔리코 이안니엘로가 현대문학 출판사를 통해 한국어로 번역 출판된 그의 책 ‘원더풀 이시도로, 원더풀 라이프(La vita prodigiosa di Isidoro Sifflotin)’을 원작으로 하는 낭독극 ‘이시도로(ISIDORO)’에 출연합니다 (제작_나폴리 Teatri Uniti, 기술감독_라파엘레 베키만지).

줄거리: 이시도로는 이탈리아 중부의 이르피니아라는 지역에서 노동운동가이자 시인인 아버지, 파스타 가게를 하는 어머니와 살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시도로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우는 대신 휘파람을 불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그는 ‘우를라피스키오’라는 새로운 언어를 창조합니다. 이시도로의 이야기는 이별과 재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고향을 떠나 나폴리로 가는 그는 우를라피스키오 덕분에 검은 새와 친구가 되고, 함께 혁신적인 언어를 만들어 가난하고 버려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힘을 남용하는 권력자들과 맞서려 노력합니다. 엔리코 이안니엘로(1970 년, 카세르타 출생)은 여러 해 전부터 토니 세르빌로가 이끄는 나폴리 Teatri Uniti 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카탈루냐어로부터 Pau Miró, Jordi Galceran, Sergi Belbel 의 작품들을 번역했습니다. 또 영화계에서는 난니 모레티와 함께 작업했고 TV 에서는 TV 미니 시리즈 “하늘에서의 한 걸음”에서 경찰국장 나피를 연기했습니다. 그의 처녀작인 이 책(원제: 이시도로 시플로틴의 환상적인 삶, 펠트리벨리 출판사, 2015)은 출간된 2015 년 캄피엘로 신인작가상, 존 판테 신인작가상, 쿠네오상, 셀레찌오네 방카렐라 상을 수상했습니다.

2019 년 10 월 25 일 CGV 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에서는 나폴리 Teatri Uniti 와 라이치네마가 함께 제작한 다큐멘터리 “연극제작기” (연출 마씨밀리야노 파치피코, 출연 토니 세르빌로)가 상영됩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프랑스의 대연출가 루이스 주베(Louis Jouvet)의 어느 수업으로부터 출발하여 작품 돈조반니를 위해 연기자들과 일하는 연출가의 연출 작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올해는 또한 주한이탈리아문화원이 서울대학교 오페라연구소가 주관하는 서울대학교 제 31 회 정기 오페라 공연을 위해 함께 협력합니다. 2019 년 10 월 23 일부터 26 일까지 서울대학교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

대강당에서 열리는 올해의 공연작은 자코모 푸치니의 “일 트리티코 - 외투, 안젤리카 수녀, 잔니 스키키 삼부작”(연출: 파올로 파니짜)입니다.

이 세 행사에서는 한국어 자막이 제공됩니다.

세계이탈리아언어주간의 제 2 막에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한이탈리아문화원 파올라 치콜렐라 원장, 서울예술대학교 안드레아 파초토 교수, 한국외국어대학의 마르타 짐바르도 교수가 함께 이탈리아어와 극의 관계를 탐색하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또한 경진대회를 통해 이탈리아 연극에 대해 가장 우수한 연구작을 소개하는 학생에게 상이 수여됩니다.

11 월 12 일부터는 역시 이탈리아언어주간 행사의 일환으로서 마에스트로 마우리찌오 콜라치키(Maurizio Colacicchi)의 벨칸토 마스터 클래스가 서울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열립니다.